

중학생의 가족응집력,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

임가영¹ · 강인순² · 정희진³

신라중학교 보건교사¹,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², 시간강사³

Middle School Student's Family Cohesion, Anger Expression, and Using of the Internet

Im, Ga-Young¹ · Kang, In-Soon² · Jeong, Hee Jin³

¹Health teacher, Silla Middle School, ²Professor, ³Part-time Lecture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family cohesion and anger level, anger expression mode on internet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24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December 5 to December 25 of 2007 and analyzed by SPSS/WIN 12.0 program. **Results:** Male Participants tended to be more addictive to internet than female, and the higher grade and longer they used internet, the severer they tended to be addicted to internet. The group with high anger lever showed high anger-in level and anger-out level, unsuitable anger expression, modes, and its mental health status was bad. The higher anger-in level and anger-out level group showed, the worse their mental health status was. For middle school student's mental health,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programs which can decrease anger level and dissolve anger and educate middle school student to express anger at an acceptable level according to situation.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eded that enhancing communication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particularly for male and those in the lower grades.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discussed.

Key Words: Middle school student, Family cohesion, Internet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고 2차 성징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에 따른 심리적 미숙으로 청소년은 공포와 불안한 정서를 갖고 분노표현과 질투가 많으며 이것은 청소년기 특유의 반항 심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 쉽게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또 그것에 쉽게 빠지게

되는 시기이다 (윤현민, 2005).

청소년의 대표적인 발달과업을 자아정체감 획득이라고 할 때, 인터넷은 추상적 사고와 상상만으로 자아를 탐색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감 있게 다양한 역할을 시험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채팅과 게임은 실감나는 화면으로 구체적,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청소년의 불완전한 인지능력을 보완해 주며, 즉각적인 피드백 등을 통해 그들의 과장된 자의식을 만족시키고, 익명성으로 안전감을 부여해 주어 청소년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계원, 2001).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독서율과 TV시청률이 감소하

주요어: 중학생, 가족응집력, 인터넷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ang, In-Soon,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emo-ri, Mulgeum-eup, Yangsan 626-770, Korea.
Tel: 82-51-510-8357, Fax: 51-51-510-8308, E-mail: nursing@pusan.ac.kr

- 이 논문은 임가영의 석사학위논문의 축약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0년 10월 11일 / 수정일 2010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30일

고 예전보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대인간 교류가 청소년들의 사회성 개발을 감소시키며 인터넷으로 인해 유해물의 접촉 기회나 게임중독 등의 부작용이 존재하게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a).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특성상 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이들의 인격은 주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형성되어진다 (김기리, 2007).

가족은 인간의 가장 일차적인 환경으로 가족 구성원의 양육, 보호, 사회화, 정서적 발달은 물론 인격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인간은 가정을 통해 사회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애정 및 안정을 얻지 못할 때 성장 이후 소위 일탈행동을 하는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경란, 2001). 또한 가족기능이 약한 경우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과 가족기능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석, 2000).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무분별한 혼동을 초래하고, 인터넷 사용이 중독적일수록 우울, 반사회적 인격장애, 공격적인 행동, 분노표현 등의 불안정된 정서를 수반하게 되고,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비행으로 대두되고 있어 개개인의 발달단계에 있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대체로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충동성 (김태현, 2007), 분노표출 (장윤지, 2005), 낮은 자존감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조남근과 양돈규, 2001). 더욱 이런 성향을 가진 청소년은 압력과 분노표현을 적절히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좌절감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현민 200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폭력성이나 공격성, 분노표출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낮게 하며 전반적으로 자신감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 (김미경, 2002; 라민오, 2000; 장혜진, 2002; 최민정, 2000)와 충동적이고 자아가 불안한 청소년에게 있어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분노표출,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심리적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송원영, 1999; 황정미, 2003)는 연구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이 인터넷 사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이 인터넷 사용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터넷 사용 특성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가족응집력,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파악한다.
- 가족응집력,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 정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이란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각 가족 구성원들의 자율성 정도 (Olson, Russell & Sprenkle, 1983)를 말한다.

2) 분노표현

분노표현이란 자기 욕구의 실현을 부정 및 저지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생기는 정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두산세계 대백과사전, 2002)

3) 인터넷 사용

인터넷 사용 정도란 인터넷에 대한 내성, 금단증상과 함께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역할 또는 기능의 축소를 유발하는 상태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b; Goldberg, 1996)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가족응집력 및 분노표현과 인터넷 사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

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1000명이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부산광역시 중학교 170개교, 4,182학급, 149,169명 중 부총 6개교를 임의로 추출하고 각 학교 별로 1, 2, 3학년 중 2학급씩 6학급을 임의로 추출하여 총 36학급 1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질문지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7명을 제외한 남학생 457명, 여학생 466명인 총 923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가족응집력

Olson, Portner와 Lavee (1985)가 개발하고 신지영 (2000)이 번안한 가족기능척도 (FACE-III)도구를 사용하여 가족응집력을 조사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가족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개발된 10문항의 자가보고식 측정도구로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족응집력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Likert-type scale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Olson 등 (1985)의 연구의 Cronbach's $\alpha = .77$ 이었고, 신지영 (2000)의 연구에서 .87,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 분노표현

본 연구에서 분노특성 및 분노표현 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등 (1985)이 제작한 '분노표현척도검사'를 김백영 (199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는 분노특성 20문항 (상대분노 10문항, 기질분노 10문항), 분노표현 양식 24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의 Likert-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분노표현 양식은 24개 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이 있다. 분노표현 양식은 분노억제, 분노통제, 분노 표출의 3가지 양식으로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억제는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거나 억압하는 빈도수를, 분노표출은 주어진 환경에서 타인이나 물건 등 어떤 대상에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주 분노를 표현하는가를, 분노통제는 개인의

분노표현을 조절하려고 하는 빈도수를 의미한다. 김백영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였다.

3) 인터넷 사용 정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김청택 등, 2002)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도구인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지 (K-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고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정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로 표준화되었다 (김태현, 2007).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지는 일상생활 장애 9문항, 현실구분 장애 3문항, 긍정적 기대 6문항, 금단 6문항,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5문항, 일탈행동 6문항, 내성 5문항의 7가지 하부요인을 포함한 총 40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type Scale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채점하여 최소 40점부터 최고 160점까지 분포한다.

인터넷 사용 정도는 총점과 하부요인 점수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은 총점이 94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 장애 요인이 21점 이상이고, 금단요인은 16점 이상이고, 내성 요인은 15점 이상일 때, 잠재적위험군은 총점이 82~93점이거나, 일상생활 장애 요인이 18점 이상이고, 금단요인은 14점 이상이고, 내성 요인은 13점 이상일 때,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일반사용군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의 연구에서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4$ 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 간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의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수업 시간이나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보건교사 혹은 담임교사가 즉시 회수, 본 연구자가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응답 소요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 검정은 $\alpha = .05$ 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인터넷 사용 특성,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구분하였다.
- 대상자의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χ^2 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

1)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성별과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위험군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100%, 잠재적 위험군에서는 83.6%로 여학생 보다 많은 비율로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59.093, p<.001$).

학년은 고위험군의 경우 3학년이 55.8%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은 2학년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용군은 1학년이 37.6%로 가장 많아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28.825, p<.001$)

학년은 1학년의 일반사용군이 77.6%, 잠재적 위험군이 18.3%, 고위험군이 4.1%이고 2학년의 일반사용군이 76.9%, 잠재적 위험군이 21.5%, 고위험군이 1.6%, 3학년의 일반사용군이 76.1%, 잠재적 위험군이 14.9%, 고위험군이 9.0%로 일반사용군은 1학년이 가장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은 2학년이 고위험군은 3학년이 높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chi^2= 128.825, p<.001$).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즉,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대, 인터넷 사용영역과 인터넷 사용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라서는 1시간 이하가 일반사용군이 31.4%, 잠재적 사용군이 25.7%, 고위험군이 18.6%이었고, 1~2시간은 일반사용군이 31.9%, 잠재적 위험군이 31.6%, 고위험군이 34.7%, 2~3시간은 일반사용군이 21.7%, 잠재적 위험군이 24.0%, 고위험군이 25.6%, 3시간 이상은

일반사용군이 15.0%, 잠재적 위험군이 18.7%, 고위험군이 20.9%로 일반사용군보다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33.504, p<.001$).

인터넷 사용시간대에 따라 인터넷 중독을 분석한 결과는 오후 8시 이전은 일반사용군이 23.2%, 잠재적 위험군이 36.5%, 고위험군이 23.2%, 오후 8시~10시는 일반사용군이 33.5%, 잠재적 위험군이 26.5%, 고위험군이 20.9%인 반면에 오후 10시~12시는 일반사용군이 33.5%, 잠재적 위험군이 25.3%, 고위험군이 25.6%, 오전 12시 이후는 일반사용군이 12.8%, 잠재적 위험군이 11.7%, 고위험군이 30.3%로 일반사용군보다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6.148, p=.013$).

인터넷 사용영역에 대한 분포는 첫째, 게임에서 고위험군은 81.4%, 잠재적 위험군은 74.0%, 일반사용군은 41.8%로 고위험군이 월등하게 높은 반면, 채팅이나 웹서핑의 일반사용군은 15.1%, 13.7% 잠재적 위험군은 8.2%, 5.9%, 고위험군은 9.3%, 0%로 일반사용군이 높게 나타났다 ($\chi^2=28.048, p<.001$).

인터넷 사용동기에 대한 인터넷 사용 정도를 살펴보면 재미나 오락과 스트레스 해소는 일반사용군은 44.0%, 5.8% 잠재적 위험군은 55.6%, 10.5%, 고위험군은 55.8%, 18.6%로 일반사용군에 비해 고위험군이 높은 반면, 새로운 정보는 일반 사용군이 9.9%, 잠재적 위험군이 7.0%, 고위험군이 7.0%, 심심해서는 일반 사용군이 35.8%, 잠재적 위험군이 24.0%, 고위험군이 14.0%로 고위험군에 비해 일반사용군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chi^2=32.951, p<.001$).

그러나 총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사용장소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인터넷 중독 자기인식과 예방교육 실태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자기인식과 예방교육 실태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인터넷 중독 자기인식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기인식은 ‘매우 심각하다’가 일반사용군 32.6%,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 23.4%, 고위험군의 비율 15.7%이 높았고 ‘대체로 심각하다’는 경우 일반 사용군이 66.8%로 잠재적 위험군 54.4%, 고위험군 41.9%로,

표 1.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

(N=923)

| 내용 | 구분 | 고위험군 | 잠재적위험군 | 일반사용군 | χ^2 | p |
|------------------------|----------|-----------------|------------------|------------------|----------|--------|
| | | (n=43) n (%) | (n=170) n (%) | (n=710) n (%) | | |
| 성별 | 남 | 43 (100.0) | 142 (83.6) | 272 (38.3) | 159.09 | < .001 |
| | 여 | 0 (0.0) | 28 (16.4) | 438 (61.7) | | |
| 학년 | 1 | 14 (32.6) | 63 (37.1) | 267 (37.6) | 128.83 | < .001 |
| | 2 | 5 (11.6) | 67 (39.4) | 239 (33.7) | | |
| | 3 | 24 (55.8) | 40 (23.5) | 204 (28.7) | | |
| 총 인터넷 사용 기간 (년) | 1 미만 | 0 (0.0) | 7 (4.1) | 16 (2.2) | 4.90 | .290 |
| | 1~3 | 4 (9.3) | 14 (8.1) | 68 (9.6) | | |
| | 3 이상 | 39 (90.7) | 150 (87.7) | 625 (88.2) | | |
|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시간/일) | 1 이하 | 8 (18.6) | 43 (25.7) | 224 (31.4) | 133.50 | < .001 |
| | 1~2 | 15 (34.7) | 54 (31.6) | 226 (31.9) | | |
| | 2~3 | 11 (25.6) | 41 (24.0) | 154 (21.7) | | |
| | 3 이상 | 9 (20.9) | 32 (18.7) | 106 (15.0) | | |
| 인터넷 사용 시간대 (시) | 오후 8 이전 | 10 (23.2) | 62 (36.5) | 244 (34.4) | 16.15 | .013 |
| | 오후 8~10 | 9 (20.9) | 45 (26.5) | 238 (33.5) | | |
| | 오후 10~12 | 11 (25.6) | 43 (25.3) | 137 (19.3) | | |
| | 오전 12 이후 | 13 (30.3) | 20 (11.7) | 91 (12.8) | | |
| 인터넷 이용 장소 | 내방 | 21 (48.8) | 84 (49.4) | 307 (43.2) | 12.26 | .056 |
| | 거실 | 16 (37.2) | 68 (40.0) | 350 (49.3) | | |
| | PC방 | 5 (11.6) | 18 (10.6) | 43 (6.1) | | |
| | 기타 | 1 (2.3) | 0 (0.0) | 10 (1.4) | | |
| 인터넷 이용 영역 | 게임 | 35 (81.4) | 126 (74.0) | 297 (41.8) | 28.05 | < .001 |
| | 채팅 | 4 (9.3) | 14 (8.2) | 107 (15.1) | | |
| | 웹서핑 | 0 (0.0) | 10 (5.9) | 97 (13.7) | | |
| | 정보검색 | 4 (9.3) | 6 (3.5) | 75 (10.6) | | |
| | 기타 | 0 (0.0) | 14 (1.2) | 134 (3.1) | | |
| 인터넷 이용 동기 | 재미나 오락 | 24 (55.8) | 95 (55.6) | 312 (44.0) | 32.95 | < .001 |
| | 새로운 정보 | 3 (7.0) | 12 (7.0) | 70 (9.9) | | |
| | 친구 사귀 | 2 (4.7) | 4 (2.3) | 16 (2.3) | | |
| | 심심해서 | 6 (14.0) | 40 (24.0) | 254 (35.8) | | |
| | 스트레스 해소 | 8 (18.6) | 18 (10.5) | 42 (5.8) | | |
| | 기타 | 0 (0.0) | 1 (0.6) | 16 (2.2) | | |

‘심각하지 않다’는 일반 사용군 13.6%,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 15.2%, 고위험군의 비율 25.6%로 나타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 25.6%인 반면 일반 사용군에서는 ‘대체로 심각하다’가 66.8%를 차지해 인터넷 중독 자기 인식과 인터넷 사용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7.531$, $p=.008$).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유무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가 일반사용군은 63.5%, 잠재적 위험군은 51.2%, 고위험군은 4.3%로 반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일반사용군은 36.5%, 잠재적 위험군은 48.8%, 고위험군은 44.2%로 분석, 교육을 받은 비율이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chi^2=29.789$, $p<.001$).

하지만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용 정도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가족응집력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가족응집력과 가족응집 분류는 표 3과 같다.

가족 응집 분류별로 분석한 결과는 역기능적 가족 형태인 이탈된 상태의 경우 고위험군 20.8%, 잠재적위험군 20.0%, 일반사용군 20.9%로 비슷하였고 밀착된 상태의 경우 고위험군 26.6%, 잠재적위험군 28.2%, 일반사용군

23.3%로 나타났다. 분리된 상태인 경우 고위험군 20.6%, 잠재적 위험군 19.4%, 일반사용군 20.9%, 연결된 상태인 경우 고위험군 32.0%, 잠재적 위험군 32.4%, 일반사용군 34.9%로 일반사용군이 다소 높았으나 χ^2 test로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chi^2= .570$, $p=.997$).

그러나 가족 응집력을 분류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 정도에 따른 가족 응집력을 분석한 결과는 고위험군의 경우 가족 응집력의 평균점수가 31.46 ± 6.9 점, 잠재적 위험군은 32.70 ± 9.7 점, 일반사용군은 33.65 ± 8.1 점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5.174$, $p=.006$).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군보다 일반사용군의 가족의 응집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후 검정결과 잠재적 위험군과 일반사용군보다 고위험군에서 가족 응집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

분노특성 및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노특성의 상태분노 ($F=53.191$, $p<.001$), 기질분노 ($F=68.904$, $p<.001$), 분노표현양식의 분노억제 ($F=30.957$, $p<.001$), 분노표출 ($F=54.673$, $p<.001$), 분노통제 ($F=30.669$, $p<.001$) 모두 인터넷 사용 정도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노특성의 상태분노는 ‘일반사용군’이 12.08점, ‘잠재적 위험군’이 14.26점, ‘고위험군’이 19.12점, 기질분노는 ‘일반사용군’이 17.60점 ‘잠재적 위험군’이 20.88점, ‘고위험군’이 27.34점으로 ‘고위험군’이 높게 나타났다.

분노표현 방식에 따른 분노억제는 ‘일반사용군’이 15.31점, ‘잠재적 위험군’이 16.48점, ‘고위험군’이 19.59점으로 ‘고위험군’이 높았으며, 분노표출도 ‘일반사용군’이 14.60

표 2.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

(N=923)

| 내용 | 구분 | 고위험군 | 잠재적 위험군 | 일반사용군 | χ^2 | p |
|-----------------|----------|-----------------|------------------|------------------|----------|-------|
| | | (n=43) n (%) | (n=170) n (%) | (n=710) n (%) | | |
|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기인식 | 매우 심각하다 | 14 (32.6) | 26 (23.4) | 124 (15.7) | 17.531 | .008 |
| | 대체로 심각하다 | 18 (41.9) | 106 (54.4) | 466 (66.8) | | |
| | 심각하지 않다 | 11 (25.6) | 38 (15.2) | 120 (13.6) | | |
| 인터넷 사용시간 줄인 이유 | 재미가 없어서 | 14 (32.6) | 32 (18.8) | 171 (24.1) | 5.179 | .521 |
| | 중독될까 걱정 | 13 (30.2) | 56 (32.9) | 198 (27.9) | | |
| | 신체피로 | 16 (37.2) | 82 (48.3) | 341 (48.0) | | |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안받음 | 24 (55.8) | 87 (51.2) | 451 (63.5) | 29.789 | <.001 |
| | 받음 | 19 (44.2) | 83 (48.8) | 259 (36.5) | | |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필요성 | 불필요 | 14 (32.6) | 111 (65.3) | 505 (71.2) | 4.024 | .403 |
| | 필요 | 29 (67.4) | 59 (34.7) | 205 (28.8) | | |

표 3. 가족응집력에 따른 인터넷 사용정도

(N=923)

| 변수 | 고위험군 (a) | 잠재적 위험군 (b) | 일반사용군 (c) | χ^2 or F | p | Scheffé |
|----------|-----------------|------------------|------------------|---------------|------|---------|
| | (n=43) n (%) | (n=170) n (%) | (n=710) n (%) | | | |
| 이탈된 상태 † | 9 (20.8) | 34 (20.0) | 148 (20.9) | 0.57 | .990 | |
| 분리된 상태 | 9 (20.6) | 33 (19.4) | 146 (20.9) | | | |
| 연결된 상태 | 15 (32.0) | 55 (32.4) | 227 (34.9) | | | |
| 밀착된 상태 † | 10 (26.6) | 48 (28.2) | 189 (23.3) | | | |
| M±SD | 31.46±6.9 | 32.70±9.7 | 33.65±8.1 | 5.17 | .006 | a≠b=c |

† 역기능적 가족형태.

점, ‘잠재적위험군’이 15.89점, ‘고위험군’이 20.29점으로 ‘고위험군’이 높았고, 분노통제는 ‘일반사용군’이 15.06점, ‘잠재적 위험군’이 16.51점, ‘고위험군’이 19.07점으로 ‘고위험군’이 높았다.

4. 가족응집력,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과의 상관관계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과의 상관관계는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응집력과 상태분노는 $r=-.141$ ($p<.001$) 기질분노는 $r=-.105$ ($p<.001$), 분노억제는 $r=-.087$ ($p<.001$), 분노표출은 $r=-.007$ ($p<.001$)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분노통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인터넷 사용기간과 분노표현 및 가족응집력에 대한 상관관계는 분노표현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가족응집력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태분노는 $r=.109$ ($p<.001$), 기질분노는 $r=.157$ ($p<.001$), 분노억제 $r=.083$ ($p<.001$), 분노표출 $r=.147$ ($p<.001$), 분노통제 $r=.110$ ($p<.001$)이고 가족응집력은 $r=-.130$ ($p<.001$)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고 가족응집력, 분노표현 및 인터넷 사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함과 인터넷 중독은 명백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그 이유에서는 ‘신체피로’와 ‘중독될까 걱정’이 각각 47.8%와 28.8%로 나타나 연구대상자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한 결과는 교육이 규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을 살펴본 결과는 먼저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chi^2=159.093$, $p<.001$)과 학년 ($\chi^2=128.825$, $p<.00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라서는 하루평균인터넷 사용시간 ($\chi^2=133.504$, $p<.001$)과 인터넷 사용시간대 ($\chi^2=16.148$, $p=.013$), 인터넷 사용영역 ($\chi^2=28.048$, $p<.001$)과 인터넷 사용동기 ($\chi^2=32.951$, $p<.001$)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위험군은 모두가 남학생 (100.0%)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사용군은 여학생 (61.7%)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3학년에서 고위험군 (55.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잠재적 위험군은 2학년 (39.4%), 일반사용군은 1학년 (37.6%)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김주노, 2000; Griffiths, 1996) 과 같은 연구결과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이 높고, 1학년 보다 3학년이 중독성이 강하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실태를 파악

표 4. 분노특성 및 분노표현 방식에 따른 인터넷사용 정도

(N=923)

| 변수 | | 고위험군 (a) | 잠재적 위험군 (b) | 일반 사용군 (c) | F | p | Scheffé |
|---------|------|------------|-------------|------------|--------|-------|---------|
| | | (n=43) | (n=170) | (n=710) | | | |
| | | M±SD | M±SD | M±SD | | | |
| 분노특성 | 상태분노 | 19.12±10.2 | 14.26±5.6 | 12.08±3.9 | 53.191 | <.001 | a≠b≠c |
| | 기질분노 | 27.34±8.7 | 20.88±5.9 | 17.60±5.5 | 68.904 | <.001 | a≠b≠c |
| 분노 표현방식 | 분노억제 | 19.59±5.5 | 16.48±3.6 | 15.31±3.5 | 30.957 | <.001 | a≠b≠c |
| | 분노표출 | 20.29±5.2 | 15.89±3.5 | 14.60±3.4 | 54.673 | <.001 | a≠b≠c |
| | 분노통제 | 19.07±4.0 | 16.51±3.5 | 15.06±3.7 | 30.669 | <.001 | a≠b≠c |

표 5.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 인터넷 사용과의 상관관계

(N=923)

| 변수 | 상태분노 | 기질분노 | 분노억제 | 분노표출 | 분노통제 | 가족응집력 |
|-----------|--------------|--------------|--------------|--------------|-------------|--------------|
| 가족응집력 | -.14 (<.001) | -.11 (<.001) | -.09 (<.001) | -.01 (<.001) | .05 (<.001) | |
| 총인터넷 사용기간 | .11 (<.001) | .16 (<.001) | .08 (<.001) | .15 (<.001) | .11 (<.001) | -.13 (<.001) |

게 나타나 인터넷 사용정도 관련 교육 혹은 지도 시에 세심하고 전략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 특성에 따라서는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대, 인터넷 사용영역과 인터넷 사용동기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교현 (2001)의 연구에서 게임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인터넷 사용정도가 중학생의 일상생활, 즉 학교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인터넷 사용 정도에 대한 전략적인 예방, 치료에 중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부모, 교사 및 가족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필요성을 살펴보면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가 32.6%, 잠재적 위험군에서 65.3%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에 관해 염려해야 할 집단에 실제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함을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받은 빈도가 전체 62.4%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보아 지금까지의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응집력에 따른 인터넷 사용 결과를 살펴보면 고위험군이 일반사용군보다 가족응집력이 약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F=5.174, p=.006$). 이러한 결과는 이시형 (2000)의 선행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이는 인터넷 사용정도가 심할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아져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들거나 가족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대화가 부족하면 중학생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몰입하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시형, 2000; 이영분, 2000).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청소년의 지나친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가족응집력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고위험군일수록 기질분노가 높고 ($F=68.904, p<.001$) 분노통제보다는 분노억제 ($F=30.957, p<.001$)나 분노표출 ($F=54.673, p<.001$)의 분노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함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표현과 인터넷 사용 정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분노표출과 비슷한 개념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대상으로 한 박정은 (2001)의 연구서 인터넷 사용 정도 정도가 심할수록 더 충동적이며 더 공격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아동은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느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대인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며, 인터넷 상의 공격성 뿐 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이 인터넷 사용 기간이 길어진다고 연구하였다 (정영숙, 2000; 박성혜, 2001; 송원영, 1998; 윤현민, 2005). 따라서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분노억제와 분노표출과 같은 부적절한 분노표현 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분노통제와 같은 적절한 분노표현 양식은 적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적절한 분노표현 방식을 교육함과 함께 감정 해소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보았을 때 실무측면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는 저학년에서부터 규칙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성별이나 학년, 총 인터넷 사용시간과 하루 평균 사용시간, 인터넷 사용 영역과 사용 동기에 대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부모나 가족의 관심과 태도와 같은 가족응집력에 따라 인터넷 사용 정도가 차이가 나므로 가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되면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분노표현과 같은 정서적 감정 조절이 인터넷 사용정도가 고위험군일수록 높아지는 결과에 따라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 역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고려된다면 그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측면에서 또한 각각의 특성의 집단에 대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고 교육내용의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인터넷 사용 정도 실태를 조사하고 가족응집력 및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지는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5개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12월 5일부터 24일까지이며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된 것은 923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터넷 사용 정도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고위험군 4.7%, 잠재적 위험군 18.5%, 일반 사용군 76.8%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 정도의 전체 평균은 65.7점이고 고위험군의 평균점수는 119.2점, 잠재적 위험군의 평균점수는 82.6점, 일반사용군의 평균점수는 58.1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는 남학생 ($\chi^2=159.093, p<.001$)과 고학년 ($\chi^2=128.82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터넷 사용에 관한 특성은 평균 인터넷 사용 기간,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의 오락적 용도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인터넷 중독 자가인식은 고위험군에서 심각하지 않다가 25.6%로 높았고, 잠재적 위험군에서 15.2%, 일반사용군에서 13.6%를 차지하였다.

넷째, 가족응집력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는 고위험군의 평균 점수가 31.46점, 잠재적 위험군의 평균 점수가 32.70점, 일반사용군의 평균점수가 33.65로 나타나 고위험군이 일반사용군보다 가족응집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5.174, p=.006$).

다섯째,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 정도의 '일반사용군'은 기질분노 17.60점이 상태분노 12.08보다 높고 분노억제 15.31점이 분노표출 14.60점보다 높으며, '잠재적위험군'은 상태분노 14.26점보다 기질분노 20.88점이 높고 분노통제 16.51점과 분노억제 16.48점이 분노표출 15.89점보다 높다. '고위험군'은 기질분노 27.34점이 상태분노 19.12보다 높으며 분노통제 19.07점보다 분노표출 20.29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 정도는 전체의 23.2%가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하여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자기인식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사용군에서도 인터넷 중독을 지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바, 이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지나쳐 건강한 인터넷 사용자에게도 중독을 염려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중독은 명백하게 구분 될 필요하다. 또한 가족응집력과 인터넷 사용 정도는 관계가 있으며, 분노표현은 인터넷 중독군이 일반사용군에 비해 상태분노와 기질분노가 높고 분노표현 방식으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노조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포함된 가족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한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 정도에 대한 이해를 다방

면으로 돕고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응집력 및 분노표현과 인터넷 사용 정도 대한 연구는 약한 가족응집력과 부정적 분노표현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가족응집력이 약해지고 분노통제가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인터넷 사용 정도가 가족응집력과 분노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다방면으로 계속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교육이나 치료방안이 가정과 학교 모두를 중심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
- 고영인 (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박사학위 논문, 부산.
- 고유진 (2001). **인터넷중독집단의 성격특성과 자기개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권영덕 (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경기.
- 권준모 (2000). **미디어 폭력에 관한 이론과 연구방법 검토**.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서울.
- 김기리 (2007).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 기능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광주.
- 김교현 (2001).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실태와 컴퓨터중독**. 학생생활연구, 28(1). 충남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대전.
- 김백영 (1997).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부적응아동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원.
- 김주노 (2000). **인터넷 사용시간과 대인관계 및 심리변화**.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
- 두산 세계 대백과 사전 (2002). 두산출판사.
- 박성혜 (2001). **컴퓨터 게임 몰입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정은 (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적 사용 및 영향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신지영 (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윤현민 (2005).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공격성 및 인터넷중독 관련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시형 (2000).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 건강 연구소.
- 이영분 (2000). **청소년 인터넷중독과 부모의 역할**. 한국 가족사회 복

- 지학회 제6회 workshop 발표논문.
- 장윤지 (2005). **학교폭력 유형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정영숙 (2000). **중학생의 컴퓨터 게임과 공격성 연구**.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0-a).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0-b).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실태보고.
- Griffiths, M. D. (1996). Internet 'addiction': An issue for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Forum*, 97, 32-36.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cmhc.com/mlists/research/>
- Olse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 83.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research ed.).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pil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F., Crane, R. J.,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pp. 5-30). New York: Hemisphere.